

2010 Gwangju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름다움을 깨우친다

'2010광주국제공연예술제' 내달 1일~16일 문예회관

오는 10월1일~1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리는 2010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상차림'이 푸짐하다. 라인업은 무용, 연극, 뮤지컬 등 6개국 16개 작품. 특히 '상업성' 등을 고려한다면 광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반갑다.



<스름>

▲세계 예술 흐름을 만나다

광주에 첫선을 보이는 러시아 전통 연극 '스름'(10월16일)은 러시아 작가 오스트로프스키의 동명 희곡이 원작으로 19세기 러시아 상인 계급의 폐쇄된 생활의 비극을 그린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작이다. 원어로 상연돼 버겁게 하지만 자막을 참조, 꼭 한번 '도전'해 볼만한 작품이다.

쿠바 무용 역시 신선하다. 무용단 단사 비에르타가 무대에 올리는 '말손(Malson·5일)'은 벨랑콜리하고 때론 유쾌한 쿠바의 일상을 접할 수 있는 무대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비디오 그래픽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프랑스 무용단 오스모시스의 'Water floor'와 'kelb'(8·9일)은 백스क्र린에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 신체와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고전의 재해석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두 작품이 눈에 띈다. 극단 여행자의 '한 여름밤의 꿈'(2일~3일)은 원작에 등장하는 요정과 인간을 한국적 정서가 가미된 도깨비와 인간으로 바꿔 유쾌한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에딘버러 축제 등 세계적 축제에 수차례 초청된 수작으로 현재 가장 각광받는 연출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양정웅씨의 독특한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이기도 하다.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12일) 역시 새롭게 옷을 갈아 입었다. 욕망을 위한 살인과 그 죄의식을 다룬 원작을 약간 비틀어 한 인간의 죄의식을 통해 현대 문명 세계를 비틀어 본 작품으로 연출가 김낙형이 새롭게 해석했다. 한국무용의 대모 김매자씨가 이끄는 창무희의 '심청'(10월6일)은 고전소설 '심청'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판소리와 어우러진 작품으로 한국무용사(史)의 일획을 그은 작품이다.

▲광주, 아시아와의 조우

이번 예술제에서는 광주 예술인들과 연출가, 아시아 각국의 배우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15일)은 광주 지역 배우를

포함, 이란·중국·대만 출신 예술인들이 프로젝트형 퍼포먼스 워크숍 형태로 꾸미는 공연이다. '기차', '선녀와 나무꾼' 등을 만든 극단 '초인'의 박정희의 대표작 연출을 맡았다.

'불루 사이공', '화려한 휴가', '오아시스 세타소 습격 사건'의 김정숙 작가와 권호성 연출이 함께 만드는 '그대 이름은 오델로'는 언어와 신체 표현의 이미지극. 12월 광주에서 다시 공연되며 내년 6월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일본·중국·한국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다.

▲몸짓으로 말한다

이번 예술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가 무용이다. 전미숙 무용단의 '울지 마세요'(4일)는 지난해 타계한 독일의 피나바우쉬의 예술적 작업을 기리는 현대무용으로 주체측이 자신 있게 권하는 작품이다.

이영애무용단의 '소제의 바이올린'(13일)은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작곡가 정용성을 소재로 한 발레 작품이며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선보이는 '아시아의 춤춤'(10일)은 아시아의 다양한 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신나는 야외공연

광주천변, 5·18기념공원, 충장로 우체국 앞, 광주역 등 야외에서는 유쾌한 작품들이 공연된다.

프랑스 뤼 베톤 극단의 '카멜라'(1~3일)는 얼굴 없는 남자가 애벌레처럼 생긴 회색통 속에 들어가 펼치는 퍼포먼스 연극 바쉬거리 극단의 '플리프 핏어'(5~6일)는 슬랩스틱 유머와 라이브 피아노 반주와 함께 펼쳐지는 무성 영화 스타일의 괴리극이다.

또 '노리단'의 '고래의 꿈'(11일)은 금남로에서 공연되는 축제형 대형 퍼레이드 작품이며 '무브먼트 당당'의 '떠나는 사람들'(14일)은 한국전쟁 60주년을 소재로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그밖에 뮤지컬 '잭 더 리퍼'(1일~2일)는 이번 상연작 중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다. 영국에서 실제 발생했던 연쇄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체코 뮤지컬로 유준상·안재욱·신성우 등 호화캐스팅이 돋보인다. 문의 062-511-12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 여름 밤의 꿈>



<잭 더 리퍼>



<심청>

전통·현대 아우르는 현의 소리

내일 문예회관서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공연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단장 서담)이 광주문예회관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선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현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성심은(전남대 교수)씨 등이 김복과 류 가야금 산조를 합주로 들려주며 황송 옥씨가 가야금병창으로 '백발가'를 선사한다. 또 25현 가야금 두대와 오카리나, 타악이 어우러진 '산사정담', 바쁜 현대인의 삶속에 편안한 위안과 여유를 주는 변계원 곡 '평온한 안식' 등을 들려준다.



<성심은> <서담>

피날레곡은 지리산 돌레계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가야금 3중주곡 '엄친강 도는 물'이다.

지난 1992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은 성심은 교수 등 3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1-9620-45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

시립미술관 '황색의 문' 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황색의 문'전을 연다. 또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시장에서 '동아시아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기라·이이남·정운화·정정주·류평·종비아·카네우지·코이즈미 등 한국, 일본, 중국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씨는 전통 회화를 미디어에 접목시켜 움직임이 만든 작품을 선보이고, 정운화씨는 색을 소재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세미나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이영우 상임 부이사장이 '동아시아현대미술의 미학적 재해석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광주시립미술관 한창운 전시운영과장이 '중국 송장미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한다.

이 밖에 성곡미술관 박찬남 학예실장, 오



류평 작 '인민의 불발'

사카에 이서영 전 초빙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13-539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로 인문학하기:기억하나요'

14~17일 광주미디어센터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와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은 강사를 초대해 영화를 함께 본 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영화로 인문학 하기:기억(記憶)하나요?' 강연회를 연다.

14~17일까지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14일은 맹수진(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와 함께 '원더풀 라이프'(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보고 '타자를 배제한 기억'이란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15일은 남완석(우석대교수) 영화평론가를 초청해 '굿바이, 레닌'(감독 볼프강 베커)을 본 후 '집단 기억으로서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16일은 영화평론가 강유정씨가 '올드보이'(감독 박찬욱)를 놓고 '트라우마와 기억'으로, 17일은 김동식 문학평론가가 '리브레터'(감독 이와이 순지)를 보고 '무의식의 기억과 영화 이미지'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62-650-0322.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 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킬러스 (15세), 2관 에프터라이프 (15세)/에브리바디올라잇 (18세), 3관 인셉션 (12세)/아저씨 (18세), 4관 아저씨 (18세), 5관 라스트에어벤더 (전제)/피라냐 (18세), 6관 해결사 (15세), 7관 마루밀아리에티 (전제)/킹스톰 (18세), 8관 물란 (15세)/프레데터스 (15세), 9관 마루밀 아리에티 (전제), 10관 해결사 (15세). MEGABOX. 1관 해결사 (15세), 2관 아저씨 (18세), 3관 에프터라이프 (15세), 4관 킬러스 (15세), 5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18세), 6관 피라냐3D (18세), 7관 악마를보았다 (18세), 8관 마루밀 아리에티 (전제), 9관 아저씨 (18세), 10관 해결사 (15세). CINUS. 1관 해결사 (15세), 2관 에브리바디올라잇 (15세), 3관 마루밀 아리에티 (전제), 4관 인셉션 (12세)/에프터 라이프 (18세), 5관 피라냐3D (18세), 6관 악마를보았다 (18세), 7관 킬러스 (15세), 8관 아저씨 (18세), 9관 해결사 (15세). 1588-7941, 1544-0600, 1544-0070, 511-1000, www.cinus.co.kr, www.megabox.co.kr, www.kinoh.com